



Received: 2026/05/18
Revised: 2026/05/31
Accepted: 2026/06/16
Published: 2026/06/30

***Corresponding Author:**

SuChang Yang

271, Jaun-ro, Yo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 : +82-42-878-2429

E-mail: scyang0405@naver.com

Abstract

최근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민간 주도의 파괴적 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국방획득체계는 엄격한 절차 중심 구조로 되어 있어 첨단기술의 변화속도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에 미국은 최근 기존 국방획득체계의 관료적 규제를 배제하고 모든 획득기준을 '전투력의 신속한 제공'에 중점을 둔 전투수행 중심 획득체계(WAS)로 전환하여 시제품 제작에서 대량 전력화에 이르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전의 양상변화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 필요성을 바탕으로 미국군의 최신 국방획득 혁신사례인 WAS를 분석하고, 한국군 신속시범사업의 전력화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Recently, commercially driven disrup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manned systems, have been transforming the paradigm of the battlefield.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s defense acquisition system remains primarily procedure-oriented, thus limiting its ability to adapt to the rapid pace of advanced technological change.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U.S.) military has recently transitioned from the tradi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characterized by bureaucratic regulations—to the warfighting acquisition system (WAS), which prioritizes the rapid delivery of combat capability as its core acquisition objective. This transi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timeline from prototyping to large-scale fielding. Based on the increasing necessity for the rapid fielding of advanced weapon systems reflect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the evolving nature of future warfare, this study analyzes the WAS as a recent case of defense acquisition innovation in the U.S. Furthermore, it proposes policy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accelerate the fielding process of the ROK military's Rapid Demonstration Project.

Keywords

적응형 획득 프레임워크(AAF), 국방획득체계(DAS), 전투수행 중심 획득체계(WAS), 신속시범사업(Rapid Demonstration Project), 국방전략기술(National Defense Strategy Technologies)

미국의 전투수행 중심 획득체계 (WAS) 전환사례를 통한 한국군 신속시범사업 전력화 촉진방안 연구

Strategies to Accelerate Fielding of ROK Military's Rapid Demonstration Project Through U.S. Transition to Warfighting Acquisition System

양수창^{1*}, 정용기²

¹충남대학교 국방경영공학 박사과정/해군대학 해양전략전력학처 교관

²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SuChang Yang^{1*}, YongKi Jung²

¹Ph.D. student, Dept. of Defense Management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Instructor, Dept. of Maritime Strategy Force Studies, ROK Naval War College

²Professor, School of Intergrated National Secur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현대전의 양상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무인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 짓는 기술패권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기체계의 전력화 속도는 곧 국가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또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우 전쟁과 2026년 2월 발발한 미국-이란전쟁은 저비용 고효율의 민간 상용기술이 어떻게 비대칭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전통적 국방획득절차는 무기체계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빠르게 진화하는 민간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방획득과 민간 신기술의 발전 속도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에는 새로운 국방획득체계인 적응형 획득 프레임워크(AAF: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를 정립하여 5년 내 시제품 제작과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중간단계획득

(MTA: Middle tier of acquisition) 제도를 도입하였고[1], 2025년에는 AAF를 더욱 발전시켜 실전 배치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투수행중심 획득체계(WAS: Warfighting acquisi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2].

한국군도 빠르게 진화하는 민간 신기술을 신속하게 무기체계에 반영하여 전력화하기 위해 2008년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을 시작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시범연구개발사업으로, 2023년에는 두 사업의 제도·절차를 보완하여 단기간(2~3년) 내 무기체계 획득이 가능하도록 신속시범사업으로 발전해 왔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속시범사업은 초기 단계 군 소요와의 미연계, 사업 성공 이후 소요제기에 따른 비효율성 지속,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미 실패한 ACTD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의 국방획득체계 혁신과정과 2025년에 발표된 WAS의 주요 전략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군 신속시범사업의 전력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한국군의 무기체계 신속획득과 관련한 연구들은 제도 도입 필요성, 실무적 운영, 전략적 발전 방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강경환 외(2023)와 강호중(2023)은 기존 국방획득관리제도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신속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4,5], 장원준·송재필(2022)은 미국과 독일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형 신속획득 프로세스(K-rapid acquisition process) 정립방안을 제시하였다[3].

실무적 운영 과제와 관련하여 최재연 외(2021)는 신속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복수업체 선정 기준 정립을 제안하였고[6], 박종완 외(2024)는 신속획득 시험평가 단계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면서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험평가 모델을 제시하였으며[7], 석미화 외(2025)는 신속시범사업 수행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과 각 군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8].

전략적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최성욱 외(2025)는 전문가 설문과 SWOT 분석을 통해 신속시범사업이 전력화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9].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국형 신속획득의 이론적·실무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가 AAF, MTA 등과 같은 202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미군의 초기 혁신모델과 연계해 발전 방향이 다루어져 있어, 최근 미군이 추진 중인 ‘전투력의 신속한 제공’에 중점을 둔 획득체계인 WAS에 대한 고찰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군의 최신 획득체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군 신속시범사업의 전력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군 신속시범사업 현황과 한계점

2023년 5월, 한국군은 Table 1과 같이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 등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시제품을 개발한 후 각 군과 해병대의 성능 입증 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Table 1. National defense strategy technologies[10]

① AI	② Quantum	③ Space
④ Energy	⑤ Advanced Materials	⑥ Cyber & Network
⑦ Manned-Unmanned Teaming	⑧ Sensors & Electronic Warfare	
⑨ Propulsion	⑩ Counter-WMD	

신속시범사업은 향후 무기체계로 소요제기가 가능하고 사업비용이 500억원 이하,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기존과 달리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각 군, 해병대도 사업 주체로서 사업 공모부터 성능 입증시험 수행·평가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Fig.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자체규정과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1].

일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과 달리 신속시범사업은 신속성과 유연성을 핵심 특징으로 한다. 즉, 단기간 내 시제품을 확보하고 군 시범운용을 실시함으로써 민간기술의 군 적용 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3]. 따라서, 기존 방산업체 중심 획득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스타트업 및 비전통적 방산기업의 군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신속시범사업은 여전히 아래와 같은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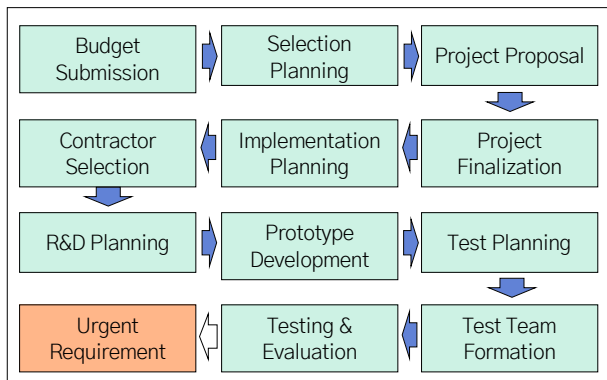


Fig. 1. Procedures for rapid demonstration projects ([11], pp. 35-36)

첫째, 기존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이중구조 문제이다. 초기 시범운용 단계까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 추진될 수 있으나, 이후 실제 전력화 과정에서 다시 소요결정, 중기계획 반영 등과 같은 기존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신속성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2].

둘째, 완성형 요구성능(ROC) 중심 문화로 반복개량이 제한된다. 기존 획득체계에서는 요구성능 충족 여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신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는 초기 완성도보다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반복개량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군의 획득체계는 여전히 완성형 요구성능 충족 여부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3].

셋째, 민간 첨단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속시범사업은 민간 혁신기술의 군 적용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안규정, 복잡한 계약절차, 방산 중심 사업문화로 인해 스타트업, 비전통적인 방산기업의 사업참여가 어려운 구조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 혁신기술의 군 적용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각 군과 해병대의 신속시범사업 기반 구축에

격차가 있다. 육군의 경우 자체규정을 제정하고 육군 본부에 민군융합형 연구개발 시범사업TF를 편성하여 사업을 통제·관리하는 등 사업 전담조직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해·공군, 해병대의 경우 신속시범사업을 전담하여 소요제안부터 검증까지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조직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1].

4. 미군 국방획득체계 혁신 동향

4.1. AAF를 통한 획득경로 다변화(2020년)

미국의 국방획득체계(DAS: Defense acquisition system)는 냉전시기에 함정, 항공기와 같은 대규모 플랫폼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다. DAS는 비용, 일정, 성능의 균형적 관리를 핵심가치로 하며, milestone A/B/C 기반의 순차적 사업관리구조가 특징으로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무기체계 획득에 적합하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양상을 DAS로는 적절한 대응할 수 없었다. 특히, DAS는 완성형 요구성능(ROC) 충족이 사업 성공의 핵심기준이었기 때문에 초기 완성도보다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반복개량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의 무기체계에는 부합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은 2020년에 새로운 획득체계인 AAF를 도입하였다. AAF는 기존의 DAS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획득경로인 일반획득(MCA)과 긴급획득(UCA)에 Fig. 2와 같이 MTA, 소프트웨어 획득, 국방비즈니스 획득, 서비스 획득 등 4가지 획득경로를 추가하여 무기체계의 목적과 긴급성에 따라 획득경로를 다변화하도록 한 제도이다[1].

AAF의 핵심가치는 모든 무기체계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의 특성과 긴급도에 따라 6개의 다양한 획득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MTA는 신속한 시제품 개발과 전력화를 분리하여 5년 이내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전장에 배치할 수 있게 하였고, 소프트웨어 획득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무기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반복적인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이는 속도를 국방획득의 최우선 가치로 격상시킨 최초의 전면적인 제도 개혁으로 평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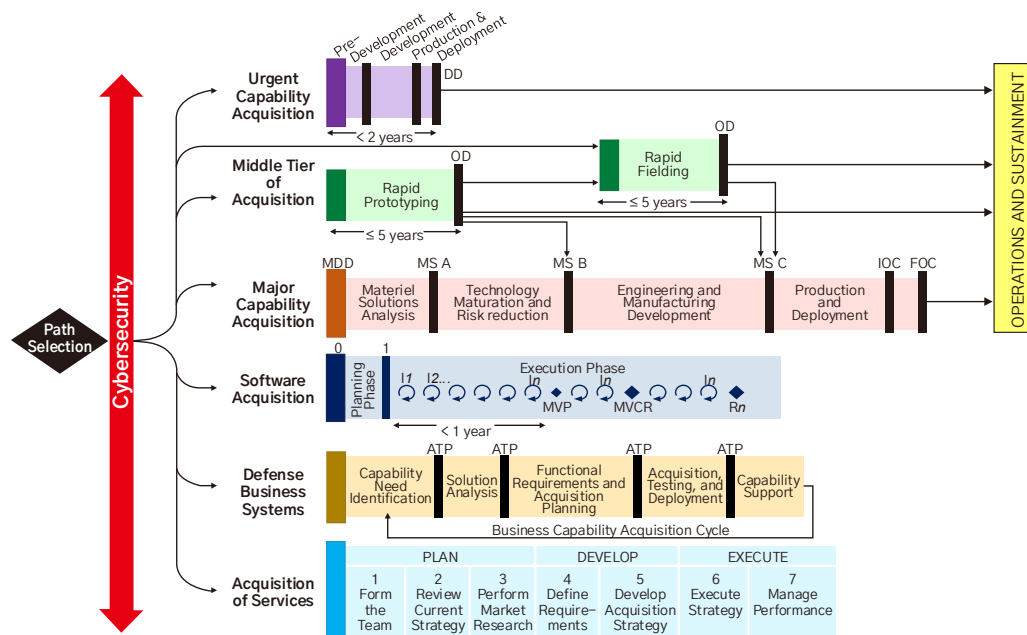


Fig. 2. U.S. Army AAF(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13], p. 10)

수 있다. 그러나, AAF 역시 DAS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문서·절차 중심 사업관리, 개별사업 중심 관리구조, 완성형 요구성능 중심 사고도 유지되면서 미래전 환경의 기술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4.2. WAS로의 개혁과 획득 전환 전략(2025년)

2025년 11월 7일,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DAS가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WAS로 전환하는 메모랜덤을 발표했다 [2]. WAS는 문서·절차 중심의 DAS와 달리 ‘전투력의 신속한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획득 자체를 하나의 전투기능(warfighting function)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완벽한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장기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전력을 조기에 배치한 뒤 지속 개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WAS로의 전환전략 핵심과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속도 기반 fast-track 획득체계로의 전환이다. 기존 DAS 획득체계는 장기간의 요구 결정과 단계적 사업관리 중심 구조로 인해 기술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WAS는 완벽한 성능을 지닌 무기체계 확보보다 최소 실행가능능력(MVC: Minimum viable capability)을 가진 무

기체계를 우선 전력화하고 이후 반복형(iterative) 개량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JCIDS(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 development system, 합동능력통합 및 개발체계)를 “전쟁이 아닌 서류 작업의 속도”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문서 중심에서 작전문제 중심 구조로 개선하여 요구결정, 예산, 평가, 전력화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범운용 후 전력화 과정에서 다시 소요결정 절차를 적용하는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반복(iterative) 개량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획득과 작전 효과 중심의 시험평가 강화이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미래전의 환경에서는 개발, 시험평가, 양산, 배치가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획득체계로는 기술 변화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WAS는 나선형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 보안을 통합하는 DevSecOps (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s) 개념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체계가 실전에서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칙·성능 중심 시험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작전 효과 중심의 시험평가를 강화하였다. 즉, 개별 ROC 충족 여부보다 전장 환경에서의 작전 효과와 전투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완성형 요구성능(ROC) 중심으로 사업관리 및 시험평가를 하는 한국군의 획득체계 변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민간 혁신 생태계 활용 강화 및 산업기반·생산체계의 개혁이다. WAS는 ‘commercial first’ 전략을 통해 군 독자개발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상용기술(COTS: Commercial off-the-shelf)을 우선 활용하고 있고, AAF의 MTA 계약형태인 기타특례권한(OTA: Other transaction authority)과 상용품 시범사업(CSO: Commercial solutions opening)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과 비전통적 방산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러-우 전쟁 이후 전시 대량생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한 미국은 “속도와 물량” 개념을 강조하며 단순 개발 중심 방산 정책에서 신속·대량 생산 기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년계약 확대, 안정적 수요신호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방산업체 중심 구조와 복잡한 행정절차, 사업 성공 이후 후속양산과의 연계가 불확실하여 기업 참여 유인에 한계가 있는 한국군 신속시범사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전투능력 포트폴리오 기반으로의 조직 개선과 획득인력 체계의 혁신이다. WAS는 특정 플랫폼 사업별로 비용·일정·성능을 관리하는 PEO(program executive officer) 중심 사업구조를 PAE(portfolio acquisition executive) 중심의 전투능력 포트폴리오 기반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미래전이 드론·지휘통제·ISR·네트워크가 통합 운용되는 다영역 작전개념임을 감안해 단일 무기체계 확보보다는 전투능력 포트폴리오 단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변화라 하겠다. 또한, 획득인력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국방획득대학(DAU: Defense Acquisition University)을 전쟁수행획득대학(WAU: Warfighting Acquisition University)으로 개편하여 단순 획득행정이 아닌 전쟁수행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하여 조직의 역량을 ‘상시 전시체계’로 전환하였다. 미군의 전투능력 포트폴리오 기반의 탄력적 사업 구조는 한국군의 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의 경직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DAU의 WAU로의 개편은 획득 전문인력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교육제도 개선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5. 한국군 신속시범사업 전력화 촉진방안

한국군은 빠르게 진화하는 민간 신기술의 군 적용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하고 신속하게 무기체계로 전력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신속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조직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군이 AAF를 거쳐 WAS로 국방획득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절차개선이 아니라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획득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 전력화 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fast-track 기반의 신속전력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은 시범운용 이후 다시 소요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구조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초기 신속성이 실제 전력화 단계에서 상당 부분 상실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속시범사업 성공 시 자동적으로 후속 전력화 단계로 연계되도록 하는 fast-track 기반의 신속전력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범운용-초기양산-전력화 확대로 이어지는 신속전력화 단계를 마련하여 신속시범사업이 민간기술의 군 적용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전투능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 작전적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소요결정 절차와 우선 예산반영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방위력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신속획득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MVC(최소 실행가능 능력) 기반의 반복개량과 작전 효과 중심의 시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신속시범사업을 포함한 한국군의 획득체계는 여전히 완성형 ROC 충족을 사업 성공의 핵심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10대 국방전략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는 초기 완성도보다 실전 운영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반복개량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도 MVC 기반의 반복개량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평가체계 역시 기존 ROC 중심에서 미래전장에 부합하도록 작전 효과 중심으로 개선하여 실제 전투효과나 운용성과 중심

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민간 혁신기업의 사업참여 확대와 산업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군은 “commercial first” 전략을 통해 민간 상용기술을 우선 활용하고 있고, OTA와 CSO제도를 통해 비전통적 방산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러-우전쟁의 전훈을 반영하여 생산속도와 공급망 중심의 산업기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도 신속 계약제도와 간소화된 보안절차 등을 마련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운용성과가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양산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혁신기업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래전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산업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

넷째, 전투능력 중심의 신속획득 조직과 각 군·해병대의 전문 인력 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의 경우 신속시범사업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각 군과 해병대의 사업기반 구축에 격차가 있고 전담 조직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미군의 WAS를 선제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 정착화 단계에서 각 군과 해병대에 기존의 경직된 플랫폼 사업관리 구조에서 벗어나 전투기능 단위로 소요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투능력 포트폴리오 기반의 신속획득 전담 조직과 제도를 갖추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교육원 내에 첨단기술과 각 군의 전술 소양을 겸비한 ‘획득 전사’ 양성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양성된 인원은 신속획득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군과 해병대의 인사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AAF를 거쳐 WAS로 국방획득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미군의 국방획득체계 혁신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 신속시범사업의 구조적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화 촉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군의 WAS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MVC 기반 fast-track 획득체계, DevSecOps 기반 반복개발체계, commercial first 전략 및 전투능력 중심의 조직혁신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은 기존 방위력개선사업과의 이중 구조, 완성형 요구성능(ROC) 중심 문화, 민간 첨단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각 군·해병대의 신속시범사업 수행 조직 미흡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ast-track 기반의 신속전력화 체계 구축, MVC(최소 실행가능 능력) 기반의 반복개발 및 작전 효과 중심의 시험평가체계 구축, 민간 혁신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산업기반 강화, 전투능력 중심 신속획득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체계 구축 등을 신속시범사업 전력화 촉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군이 추진 중인 WAS체계를 한국군의 신속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군의 WAS가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성과와 제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 한국군 신속시범사업의 제한적인 실증연구와 공개자료 부족으로 일부 공개내용만으로 분석하여 비용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신속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와 작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에 적합한 시험평가와 획득체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Jeong-Mu Lee and Su Chang Yang, ‘A Study on the Rapid Demonstration Programs for the Timely Integr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nto Weapon Systems: Focusing on Policy and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32, NO. 2, 2025, pp. 33–52.
- [2] P. Hegseth, Memorandum; Transforming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into the Warfighting Acquisition System to Accelerate Fielding of Urgently Needed Capabilities to Our Warriors,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2025.
- [3] Won-Joon Jang and Jae-Pil Song,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K-Rapid Acquisition Proces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29, NO. 3, 2022, pp. 1–14.
- [4] Kyung Hwan Kang, Kang-Hee Lim, Soyoung Kim, and Han-jin Ryu,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Speed and Efficiency,'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30, NO. 3, 2023, pp. 31-46.

[5] Ho Jeung Kang,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Focusing on the Rapid Acquisition System Applying New Technology,'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17, NO. 1, 2023, pp. 133-161.

[6] Jae-Yoen Choi, Jeong Wook Byun, and Ki Dong Shin, 'A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for Multiple Companies for the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28, NO. 1, 2021, pp. 31-44.

[7] Jong Wan Park and Hee Tae Jeong, 'Research on Efficient Test and Evaluation Implementation Methods for Rapid Demo Projects,' Journal of Applied Reliability, VOL. 24, NO. 1, 2024, pp. 1-9.

[8] Mihwa Seok, Sunghoon Park, Youngmin Choi, 'Policy Suggestion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Rapid Demonstration Program: Based on Legal Basi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 32, NO. 3, 2025, pp. 15-27.

[9] Sung-Wook Choi and Jung-mok Ma,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Rapid Demonstration Project Through SWOT Analysis Based on Expert Questionnai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6, NO. 6, 2025, pp. 389-397.

[10]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apid Demonstration Project.

<http://www.dapa.go.kr/dapa/page/selectPage.do?menuSeq=3078&pageSeq=3198> (accessed 2026.04.30.)

[11] ROK MND, Directive on Defense Force Development, 2026.

[12] Ilkuk Jeon and Yong-Bok Le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Rapid Demonstration Acquisition Project Through SWOT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6, 2022, pp. 108-116.

[13] DoW Instruction 5000.02 Operation of the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2026.